

東南亞 協力體制와 韓中關係의 未來

On the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between Korea & China

金 喜 旭*
H. O. Kim

I. 序 言

1980년대이후 세계경제질서는 冷戰體制의 종식과 地域主義의 대두로 인해 새로이 재편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세계 경제구조는 이데올로기적 對立構造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로 재통합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오늘날 國際關係는 東西間 理念과 對決이 終熄됨에 따라 軍事力에 바탕을 둔 힘의 均衡에서 經濟力에 바탕을 둔 利害의 均衡(Balance of Interest)이 重視되는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 昨年末 UR의 妥結은 冷戰時代에 있었던 對立的인 힘의 均衡과 이데올로기를 解體시키고 이에 대신하여 經濟的 利益에 따른 새로운 經濟秩序를 創出하는 世界主義(Globalism)의 前奏曲이었다. 또한 經濟的 多極體制로 轉換되는 새로운 國際秩序는 블럭 共同體의 形成과 함께 地域主義(Regionalism)을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새로운 國際秩序는 두개의 相反된 潮流인 世界主義와 地域主義가 共存하는 時代가 되고 있다.

우리는 유럽 聯合(EU)의 탄생과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발효,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의한 새로운 國際貿易規範의 모색 등을 바라보면서 나라 안팎의 커다란 挑戰과 機會를 동시에 만나고

있다.

가속화 되어가는 EU경제의 통합완성과 NAFTA의 결성 등 세계경제의 圈域化가 역의 국가에 미칠 영향은 市場擴大라는 긍정적 측면과 貿易障壁 확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세계 경제의 圈域化가 가져올 新保守主義 추세는 앞으로 대외지향발전을 지속코저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機會라기 보다는 威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國際化와 地域化라는 세계경제의 두 潮流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地域의 경제협력이 크게 요망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APEC는 상당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주로 미국의 경제적 외교·안보적 역내 주도권행사라는 전략에 의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발전의 격차 및 문화적 이질성이 큰 20여개의 회원국으로 확대될 경우 이들 국가의 공동보조에 의한 구속력 있는 분업규범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특성이 다

* 西京大學校 교수

양하다. 또 한 국가별로 經濟發展段階, 經濟規模 및 經濟體制에 있어서 이질성을 보이고 있어 經濟統合이 각국에서 미치는 효과도 각각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기존 經濟秩序에 급격한 충격을 줄 새로운 統合기구는 가까운 장래에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東北亞 국가간의 지역협력을 제도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혹자는 이 지역 국가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제도적 이질성을 들고 있으나 러시아를 제외한 역내국가들이 유교문화의 친화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상호경제발전에 필요한 보완적 요인들이 이 지역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도 동북아지역은 그러한 보완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자연적 경제지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國際的 潮流의 흐름속에서 東北亞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심부에 위치한 韓國의 西海岸과 中國의 渤海灣 地域은 주요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과 中國 두 나라는 交易과 産業分野, 交通·通信 등 社會間接資本分野, 人的 交流 및 서비스 산업분야의 協力, 그리고 國家間 또는 地方政府間의 調整과 相互協력을 바탕으로 共同的 繁榮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동북아시아지역은 지역국가들간에 존재해 왔던 경제체제와 경제개발전략 측면의 異質性이 가속적으로 해소되면서 역내의 국제경제적 관련을 점차 심화시키게 되었고 향후 한층 더 긴밀한 상호경제협력을 可視化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경제의 內部的 關聯性의 深化는 지역국들간의 노동, 자본, 기술 등 資源賦存의 差異에서 발생하는 比較優位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그 자체로서 동북아 국가들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外部的 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증대시켜 1980년대 후반 무렵부터 진행되어온 세계경제의 機構改編課程에서 북미와 유럽지역이 주도하는 新

世界經濟秩序에 대한 지역적인 集團交涉力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와같은 視覺에서 東北亞協力 體制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韓中 協力關係의 推進實態를 分析해 보면서 韓中關係의 未來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東北亞 經濟協力體制의 必要性和 政策方向

1. 東北亞經濟圈과 韓國의 役割

동북아지역은 세계최대의 인구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과 財源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교사상, 한자문화, 大乘佛敎文化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異質的 政治經濟體制의 상존으로 동질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나 일단 해당 국가들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 체제로 수렴되어 경제체제의 동질성을 갖기 시작한다면 문란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가능성은 각종 부존자원과 財源의 장기적 활용능력에 따라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얼마나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냐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은 역내국가 상호간에 經濟體制 및 經濟發展段階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經濟協力 기구는 구미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同質的 經濟間의 經濟統合과는 그 기능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제협력은 동서간, 남북간의 異質的 經濟를 하나의 국제적인 질서로 포섭하여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적합할 수 있는 協力の 본보기를 創出한다는 實驗的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東北亞 經濟協力圈 형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지역내 보완적 經濟關係의 구축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환경의 조성과 한반도에 대한 패권주의 억제라는 정치적 고려가 동시에 작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동북아 경제권이 다수국가간의 다각 협력체제로 구축될 경우 다자간 협력체제내에서 남북한의 교류기회도 자생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교류기회의 확대는 남북한 經濟協力과 통일의 기반을 구축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내에서 한국이 처한 지리적위치 및 경제발전단계상의 중진국의 위치를 활용함으로써 선진일본과 자원보유 개도국을 연결하는 중계기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중계기능을 통해 韓國은 국제분업 및 經濟發展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東北亞는 인구나 자원이 많은 중국, 자원이 풍부한 극동러시아, 자본과 첨단기술에 뛰어난 일본, 경제발전의 관리능력과 중간기술이 잘 발달된 韓國, 풍부한 勞動力과 開發이 시급한 북한 등 다양한 經濟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도시를 연결하는 형태의 자유경제 지대는 비록 그 統合의 범위가 부분적이고 국지적이라 할지라도 각국의 개발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이므로 개발계획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된 동태적 효과도 크게 기대될 수 있다.

동북아 經濟協力圈의 형성은 지역내에서 산업간 그리고 산업내 특화를 심화시켜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줄 것이며 동북아 지역내의 생산요소의 부존구조에 따라 산업입지가 재조정되고 노동, 자본 그리고 기술 등 要素集約産業의 재편이 급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東北亞 經濟圈 형성은 지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재고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으로 구성되는 成長의 엔진에 북측 저개발권의 개발잠재지역을 거점연결형 자유무역지대라는 成長벨트로 연결함으로써 지역전체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형태로 동태적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東北亞經濟의 발전은 해안지대를 따라 이루어지면서 점차 내륙으로 영향반경을 넓혀갈 것이며 현재 중국의 해안특별경제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활동과 연해주 연안의 개발계획 등은 발전의 속도에 따라 중국과 극동러시아의 내륙지역으로 산업발전의 터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한편 東北亞 經濟의 발전은 물동량의 급증으로 동해와 서해 등 인근 바다의 중요성을 고조시키고 產業活動에 따라 외부불경제로 인한 해양관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재고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동북아지역내 대기권 공해에 대한 우려도 증대시켜 지역내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東北亞經濟圈 형성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북아의 경제秩序는 일국의 지배에 의한 체제가 아니라 分業과 協助에 의해서 모든 국가에게 經濟的 利得이 고루 분배되고 지역내 분업은 각국의 부존자원 구조의 特性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經濟秩序는 아시아·태평양 經濟協力體制와의 갈등과 보안의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EU가 강화되고 NAFTA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東北亞經濟를 망라하는 地域協力體에 대한 요구도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때 동북아 經濟協力은 국제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自由貿易에 기대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전후에 유지되어 오던 國際經濟秩序는 격동의 변화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지역 질서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 및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이 가속화되어가는데 비하여 동북아지역은 성장잠재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간 經濟體制의 차이, 經濟構造 및 經濟力의 격차 그리고 정치군사적 패권주의의 우려 등으로 經濟圈 형성에 대한 기초적 여건도 성숙되지 못하였고 經濟協力에 대한 장벽도 적

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經濟體制가 市場經濟로의 동질화과정의 심화되고 개방과 市場經濟하에서 東北亞經濟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東北亞經濟圈이 가져올 동태적 효과는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진국의 입장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연계하는 교량과 조정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후진국들에게 경제발전의 경험을 남기고 있는 韓國은 東北亞 經濟協力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중간자적 役割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地域協力體를 조성해 가는데 있어서 韓國의 역할은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2. 東北亞 經濟協力 體制의 政策方向

지역협력에는 크게 보아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당해 地域의 政府가 중심이 되어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지역협력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역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를 機能的 統合 또는 自然的 經濟地域 또는 局地的 經濟圈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廣東省, 홍콩, 臺灣을 잇는 中華경제권, 韓國과 中國의 山東省을 하나로 묶는 黃海經濟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제도적 협력이 가능한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東北亞 地域에 있어서 체제의 이질성, 經濟 발전의 격차, 이해관계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전통적인 제도적 협력은 가까운 기간안에는 어렵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용이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局地經濟圈 또는 自然的 經濟圈의 형성을 통한 지역협력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經濟圈은 정부간의 어떤 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制度

的 통합이 아니라 民間企業들의 自發的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市場의 힘에 의한 經濟的 協力 형태라 할 수 있다.

東北阿 地域은 體制나 발전단계, 경제적 이해관계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地域 協力度 틀에 박힌 협력보다는 다양성을 가진 협력이 필요하며 또는 이는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民間企業中心의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 매카니즘에 의한 지역협력의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東北亞 地域의 協力は 이 지역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목전의 이익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쉽고 공동의 관심사항부터 풀어나가는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특히, 이 지역은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특성이 다양하다. 또한 국가별로 經濟發展段階, 經濟規模 및 經濟體制에 있어서 이질성을 보이고 있어 經濟統合이 각국에 미치는 효과도 각각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기존 經濟秩序에 급격한 충격을 줄 새로운 統合機構은 가까운 장래에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EEC 및 NAFTA와 같은 제도적 統合形態는 이질성이 많아 亞·太地域 國家間에 적합하지 못하다. 그래서 關稅引下에 의한 經濟的 厚生의 증대와 같은 域內諸國間의 공통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포괄적 기능을 갖는 經濟協議體로 한 統合形態를 취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지적 小地域별로 經濟協력을 통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東北亞地域은 초보적인 地域主義(Soft regionalism)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 초보적인 地域主義가 좀더 강력한 地域共同體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것은 經濟的, 政治的, 戰略的 등

國際環境變化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이해가 있는 特定地域만을 개방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經濟交流를 자유화하는 局地的 統合政策이 필요하다. 국지적 統合方式으로 첫째, 共同開發 프로젝트나 共同保稅加工區域을 운영하는 國際協力型 其他개발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國際分業方式의 自由經濟地帶를 설립할 수도 있다. 즉 각 나라마다 1개 이상씩 開放都市(經濟特區)를 지정하여 이를 개방도시 상호간에 特惠를 부여한 諸般 經濟活動을 자유화하는 構想이다.

또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東北亞 地域의 協力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非排他的이고 非差別的인 開放的 地域主義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WTO나 APEC과 같은 多者主義와 양립하고 보완적 關係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 地域에 있어서의 經濟協力은 亞太地域에 있어서의 自由貿易秩序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方向에서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中國은 지금 政治的으로 中國式 社會主義의 이데올로기를 維持하고, 經濟的으로는 市場經濟를 果敢히 받아 들이는 改革과 開放의 實驗을 繼續하면서 1992~93년에 年平均 13%의 높은 經濟成長率을 維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地域安保라는 政治的 考慮, 國際市場 基盤의 擴充과 東北亞 經濟圈 확립이라는 經濟的 判斷 속에서 韓·中 經濟交流를 持續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지난 수10년간에 급속한 工業化가 이루어져 工業生産의 管理經驗이 豐富해졌으며 어느 정도 國際市場도 갖고 있다. 그러나 自然資源이 빈약해서 에너지源과 鑛物의 大部分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다. 특히 金屬鑛物 使用量의 거의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環黃海地域의 經濟協力の 發展에 照準을 맞추어 「西海岸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始華,

牙山, 群山, 木浦라는 4개 工業其他를 建設하고 牙山新港을 만들고 群山港은 擴大하고, 仁川으로부터 西海岸을 따라 내려가 光州를 거쳐 順天에 達하는 500km의 高速道路를 建設하고 있다.

北韓의 環黃海地域도 어느 정도 工業이 발달하였고 自然資源도 비교적 豐富하고 勞動力의 素質도 比較的 좋다. 南浦는 港灣都市로 外國에 開放한 方面 外國의 投資를 誘致하는 據點이 될 것이다.

특히 環黃渤海地域의 各都市 및 地方間에는 自然資源, 勞動力, 資金, 技術 및 市場 뿐 아니라 產業構造나 경제발전의 段階에 있어서도 相當히 強한 相互補完關係가 있다. 各國, 各都市의 科學技術水準과 技術的 裝備에 差가 있으나 각각 나름대로 長點이 있어서 서로 垂直分業이 可能할 뿐 아니라 水平分業도 할 수 있어, 協力の 範圍가 넓고 協力에 관한 各種 技術條件도 比較的 좋다. 따라서 이 地域은 他地域에 比하여 確實히 有利한 入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틀속에서 韓中間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協力の 장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은 韓中 經濟協力を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協力の 進전을 위해서는 우선 이 地域國家들의 政府, 學者, 企業人들로 구성되는 東北亞經濟協力委員會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 위원회의 성격은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와 비슷하게 하고 구체적인 協力段階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용과 비교적 고정된 회원을 갖는 經濟協力포럼의 형태를 취하되 단계적으로 協力の 수준을 높여나간다.

초기단계에는 ① 內내국가들의 貿易과 換率政策의 調整 ② 부분적인 特惠關稅의 도입 ③ 공동의 經濟特區 설립 ④ 공동의 農·工業開發 program의 개발이다.

만약에 가까운 장래에 東北亞經濟圈 형성의 불가

능 하다면 다소 작은 규모의 經濟圈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만강 유역개발 등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Ⅲ. 韓中經濟協力の 實態

1. 韓中貿易의 構造的 特性

1980년부터 시작된 中國과의 交易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수출 17억 달러, 수입 13.9억 달러로 총교역규모 30.9억달러에 이르렀다. 그 후 양국의 交易은 수직상승에 가까운 급상승을 하여 1993년에는 수출 51.5억달러, 수입 39.3억달러로 총교역규모는 90.8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美國, 日本에 이어 우리의 제3위 交易相對國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國에서 볼 때 한국은 中國의 제6대 交易 대상국이며 中國輸入市場 점유율에 있어서는 8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對中貿易收支는 1980년 이후 계속赤字를 기록해 왔으며 특히 1988~92년 기간중 中國 경제의 긴축정책시행으로 中國으로 부터의 輸入은 계속 증가되었으나 輸出은 鈍化되어 1989년 12.7억달러, 1990년 16.8억 달러, 1991년 24.4억 달러, 1992년 10.7억달러의 交易樹脂赤字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 무역협정과 투자 보장협정의 체결 및 韓中修交에 따라 兩國간의 交易은 크게 확대되고 12.2억달러의 黑字로 전환되고 있다. (表 1參照)

그간 對中赤字의 주요원인은 저렴한 農水產物, 鑛產物 등 1차상품의 對中輸入이 급증한데 있으나 對中國 資産財 수출이 크게 둔화된데 있었다고 하겠으며 92년 이후 中國 긴축정책의 緩和로 交易收支는 改善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對中國 수출상품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자본집약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수입상품은 農產物, 鑛物, 纖維 등 원재

료와 노동집약형 상품으로 구성되어 양국간에는 產業間 貿易의 相互補完關係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中國간의 交易이 기본적으로 垂直分業的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纖維와 化工 등의 분야에서 수평적 보완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韓·中 經濟交流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나라의 對中優位品目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80년대에 우리나라가 계속 우위를 지니고 있었던 기계 및 運輸裝備類에서도 양국은 경쟁관계로 돌입하고 있다고 하겠다.

2. 對中 直接投資實態

우리나라의 中國에 대한 직접 투자는 199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中國경제의 安定基調회복에 따른 改革·開放 정책의 가속화와 國內企業들의 移轉 適地로 中國이 부상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1992년 초부터 中國 정부가 市場化 改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과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全方位 開放措置를 속속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경쟁국들의 對中 投資가 대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1990년까지 저조했던 우리 기업들의 對中 直接投資는 1991년 1년 동안 112건, 84.7백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92년에는 269건, 221.9백만 달러로 급증하였고 1993년엔 616건 597백만달러로 크게 확대되어 누계액은 959백만달러에 이른다. (表 2) 參照)

그러나 우리의 對中國 投資現況에서 나타난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集中度가 극심하고 투자 규모가 극히 영세하다고 하겠다.

1992. 12. 31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中 投資는 발해만 지역이 전체 투자건수의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동북 3성 지역으로 전체의 38.0%인 162건을 차지하여, 이 두 지

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건수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對中 直接投資의 발해만 및 동북 지역 集中現狀은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시작된 이래 계속 되어온 것이다.

對中 直接投資의 지역 집중 현상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부터 內陸地域에 대한 투자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타 경쟁국들의 對中 直接投資가 地域集中에서 벗어나 全方位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를 산업별(허가기준)로 보면 제조업은 403건으로써 94.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한국내의 賃金引上 등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게된 제조업이 低賃의 노동력을 확보 하므로써 生産費를 節約하기 위하여 生産施設을 중국에 移轉하고 있다고 하겠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의복·조립금속·신발·피혁·음식료품 등이 226건으로써 제조업 전체 허가투자의 57%에 이른다. 이와 같은 勞動集約 업종의 對中國 투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점은 중국의 低價 賃金を 이용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동기라고 볼 수 있다.

IV. 結言－韓中關係의 未來

중국경제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경제개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開放의 가속화와 輸出擴大를 통해 世界經濟속에서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다. 1988년 이후 본격화된 韓中 經濟協力は 1991년부터 급신장을 해왔으며 1993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42.3%를 신장한 91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제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交易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중국에 대한 우리의 해외직접투자도 1992년 269건, 1993년 616건에 이르러 93년말 현재 누계액은 9억59백만달러로써 우리나라 최대의 해외 투자국이 되었으며 앞으로 兩國관계는 더욱 경제적으로 심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韓中關係를 심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交流量 확대위주의 單線的인 구도에서 탈피하여 交流의 질을 높이는 多重的인 구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對中經濟關係의 향후 방향 역시 補完 協力的 側面을 확대하고 競爭的 葛藤의 측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協力分野를 製造業 일변도에서 資源開發, 建設, 金融, 서비스 및 科學 기술 협력 등으로 多角化 하여야 할 것이며 協力主體도 中小企業 일변도에서 大企業, 地方政府, 民間協議 기구 등으로 多樣化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投資地域 및 對象의 差別化戰略이 구사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존 對中 투자기업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近視眼的인 現地經營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現地化에의 노력을 기울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韓中 經濟協力は 東北亞經濟圈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長期的 視覺에서 東北亞 국가간 國際分業構造에 적합한 經濟協力 방안을 수립, 動態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韓中經濟協력이 南北韓 經濟交流의 증진과 연계되어 발전되어가야 할 것이다.